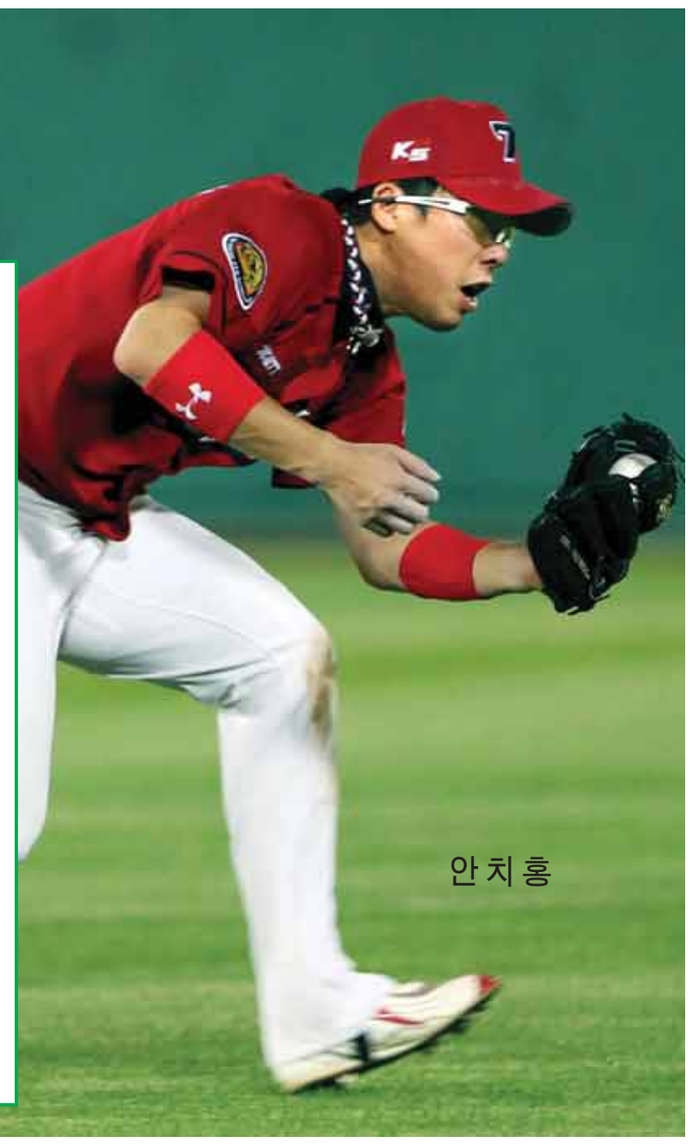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문제는 수비야"

김선빈


안치홍

KIA 선동열 감독 롯데전 오심보다 수비실책 아쉬움

"아웃, 세이프는 어필 대상도 아니고. 그게 또 운 아니겠나."

롯데전에서 나온 오심에 대한 질문을 받은 KIA 선동열 감독의 첫 반응은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불운 중 하나'였다. 어쩔 수 없는 불운이었다며 애써 담담한 반응을 보인 선 감독이었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결정적인 순간 실수를 한 심판보다는 그 상황을 연출한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4강을 위해 1승 1승이 절실한 KIA는 4일 1루에서 나온 오심과 함께 역전패를 당했다.

2-1로 앞선 7회말 2사에서 롯데 박준서의 강습타구가 2루수 안치홍을 맞고 뒤로 흘렀다. 안치홍이 재빨리 공을 잡아 1루에 뿌렸지만 임채섭 심판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조영훈의 글러브에 공이 들어간 뒤에야 박준서의 발이 베이스에 닿았지만 절박했던 경기,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심이 나온 것이다. 1점차의 팽팽한 승부에서 나온 오심에 흐름은 롯데에 기울었고 결국 2사 만루에서 손아섭의 3타점 역전 결승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2-4로 끝났다.

선 감독은 "그 상황에서 제대로 아웃선언이 됐으며 이닝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을 것인데 아쉽다. 어찌됐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불안한 수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워낙 빠른 타구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선 감독은 "안치홍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다. 키스톤 콤비의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마무리 훈련 때 죽어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웃었다.

또 "공격은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다. 하지만 수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수비 잘하는 선수를 기용하려는 것이 이런 이유다"고 수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지난 시즌 67개의 실책으로 8개 구단 중 가장 안정된 수비를 자랑했던 KIA는 올 시즌 76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라있다.

특히 안정된 수비와 호흡을 자랑했던 '키스톤 콤비'가 올 시즌 보이지 않은 실수까지 더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이들의 실책이 바로 승부와 직결되면서 선 감독에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치홍이 개막전부터 실책을 하면서 부담을 안고 올 시즌을 보내고 있고, 김선빈은 플라이 타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중요한 승부처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8월31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김선빈이 공을 놓친 뒤 앤서니의 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선취점을 내줬다. 경기는 0-3패로 끝났다. 16-4의 대승을 거뒀던 8월2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김선빈이 연달아 실수를 하는 등 KIA는 5개의 실책퍼레이드를 하면서 개운치 못한 승리를 거뒀다.

KIA의 승리에 '수비'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경 선택 기로

흥국생명 "FA 거부 … 임대 제안" 수용하면 이적동의서 발급가능

터키 페네르바체 임대 이적을 둘러싸고 두 달 이상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구단과 마찰을 빚어온 '거포' 김연경(24·사진)이 배구인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에서 중재에 나선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5일 오후 김연경과 만나 중재안 수용 여부를 타진한다.

흥국생명은 그간 소속 선수인 김연경이 구단을 배제한 채 에이전트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페네르바체와 사인한 2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런던올림픽을 통해 김연경이 한국 배구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격수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더는 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자 흥국생명도 한발 양보했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흥국생명은 핵심 쟁점이던 김연경과 페네르바체와의 장기 계약을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 주체가 김연경의 에이전트와 페네르바체 구단이던 내용을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두 구단 간 계약으로 수정 제안할 참이다.

국내에서 4시즌만 뛴 김연경이 구단의 허락 없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FA·6시즌)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장기간 임대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겠다는 자세다. 김연경이 지난 3년간 일본·터키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온 흥국생명은 갈등이 표출되긴 했으나 여전히 김연경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배구협회는 흥국생명의 동의를 얻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곧바로 발급할 계획이다.

전성기를 맞아 해외 각국을 누비며 선진 기량을 습득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와 맺은 2년 계약을 인정받아 국내 복귀에 대한 걱정 없이 터키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한편 올림픽이 끝난 뒤 오른쪽 무릎에 매스를 대려했던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술을 미뤘다.

대신 재활로 근육을 강화하기로 한 김연경은 8일 터키로 출국해 2012-2013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 덕아웃 말말말

최향남 "안치홍은 오심사건의 시작점이자 현행범"

▲다 바뀌었는데 경기장만 안 바뀌었어 = 선동열 감독, 선수들의 기술도 많이 향상 됐고 FA 제도 등 운동 여건이 좋아졌다며.

▲아 있어야지 = 선동열 감독, 한화 감독이라면 류현진을 내년 시즌 포스팅 시스템으로 해외에 보내겠냐는 질문을 받자. 한화는 류현진의 해외진출 여부에 대해 차기 감독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랜만이라 적응이 안돼요 = 5일 1군에 올라온 투수 한승혁, 러닝 나갈 때 스파이크를 챙겨 신으라는 투수 홍성민의 얘기에 오랜만이라 헷갈린다며.

▲사건났어? 현행범이네 = 인터뷰 하는 기자들로 통로가 복잡한 것을 본 마무리 최향남, 전날 롯데와의 경기에서 오심사건의 시작점이 된 내야수 안치홍이 인터뷰 주인공인 것을 확인하고.

▲대기선수에 엑스표를 쳐놨어 = 박철우 2군 총괄코치, 엔트리 확장으로 2군 선수들이 한번에 빠지면서 스타팅 오더에 출전선수 외에 이름을 적을 선수가 없다며.

▲난 쟤 선배가 아닌데 = 양상문 해설위원, SK 조웅천 코치가 무등중 선배인 선동열 감독에게 인사를 한 뒤 자신에게도 "안녕하세요. 선배님"이라고 하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쉽지 않네" 5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선 라운드 한국 대 대만의 경기에서 대만에 7 : 3으로 패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굳은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에 승부치기 패배 … 우승 도전 '먹구름'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오늘 운명의 한·일전

한국이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선 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부치기 끝에 대만에 지고 말았다.

이정훈(천안북일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대회 결선 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3-7로 졌다.

이번 대회는 12개 팀이 A·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3개 팀이 결승 라운드에 올라 크로스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 조별리그에서 3승1패를 기록해 조 2위로 결선 라운드에 오른 대표팀은 이로써 결선 라운드 전적이 1승2패가 됐다. 결선 라운드에 오른 같은 조 2개 팀과의 예선 경기 결과를 합쳐 전적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A조 조별리그에서 대표팀은 미국과 콜롬비아를 상대로 각각 1승과 1패를 기록했었다.

대표팀은 일본과 6일 오후 6시5분 목동구장에서 '운명의 한·일전'을 펼친다.

이날 불안한 출발을 보인 대표팀은 2-3으로 뒤지던 9회말 송준식의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어 연장 승부치기에 돌입했지만 끝내 지고 말았다.

주자 2명을 미리 내보낸 뒤 시작하는 승부치기에서 대표팀은 10회초 4점을 빼앗긴 뒤 득점 없이 경기를 끝냈다.

한편 같은 시간 목동구장에서 열린 일본-콜롬비아 전에서는 콜롬비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 일본을 3-0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양궁銀·육상銅 추가

패럴림픽

한국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은 대회 6일째인 4일(현지시각) 양궁에서 은메달, 육상에서 동메달을 하나씩 추가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이화숙(46)은 이날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양궁장에서 열린 2012 패럴림픽 여자 개인 리커브 스탠딩 결승에서 세트 스코어 4-6(26-27 25-24 18-26 26-25 24-28)로 지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에서는 각 세트마다 승리하면 2점을, 비기면 1점을, 지면 0점을 받는다.

이화숙은 4세트까지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지만 마지막 5세트의 화살 3발 중에서 두 번째 화살을 7점에 쐈다.

5세트에서 24점에 그치면서 28점을 얻은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육상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기수 김규대가 소중한 동메달을 얻어냈다.

김규대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패럴림픽 육상 남자 1500m 결승에서 3분12초57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전남 선수단 300명 출전

전남생활체육회가 '건강100세 생활체육! 희망가득 경남의 힘!'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 창원 마산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하는 2012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

국민생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2일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함안군 등 3개 시군에서 열리며 16개 시·도에서 만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동호인 1만여명이 참가해 대결을 벌인다.

전남은 게이트볼과 축구, 당구, 그라운드골프 등 14개 전종목에 3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동호인들과 기량을 겨루고 우호 증진에 나선다.

전남 선수단은 12일 개회식에 앞서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결단식을 갖는다.

개회식에서는 울산에 이어 열 번째로 입장하며 다음달 12일 영암에서 개막하는 2012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